

새얼굴

유재삼 경기북부지도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장에 유재삼(58·사진) 전 안산지도원장이 취임했다.

신임 유재삼 원장은 취임사에서 "사업장에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기술서비스를 제공,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근로자 건강과 안전확보 위해 노력”

또한 지도원 관내 97.8%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CLEAN 보조금 지원 및 용자, 무재해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안전보건지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유재삼 원장은 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실장, 전안지도원장, 포항지도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은 관할 지역에 맞게 2006년부터 경기북부지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연리 1.5% 저리 농축산업 지원

농·어업 경영자금 2억원 지원

포천시는 올해 농업, 어업, 축산업 관련 단체 및 종사자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의 경영자금을 저리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로, 지원범위는 개별농가의 경우 일반농업 및 축산은 3천만 원, 수산은 1천5백만 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는 1억원 이내다. 이월은 연리 1.5%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적기 경영활동으로 농축수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이번 경영자금,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로, 지원범위는 개별농가의 경우 일반농업 및 축산은 3천만 원, 수산은 1천5백만 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는 1억원 이내다. 이월은 연리 1.5%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한다.

농·어업인과 축산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높여 소득증대 등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 달 말일까지 경영자금 신청을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포천시청 농축산과(031-538-2318, 2320)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쌀 소득보전직불제 접수

농가 소득감소 충격완화 제도 마련

포천시가 1월과 2월 두달 동안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란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쌀생산 농가에 보전해,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논비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기존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불제 사업 등록자는, 변경내용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 1부만 제출하면 되며, 농지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단, 농지원부·토지대장 등으로 읍·면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006년 신규 등록신청자, 즉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신청서 외에 ▶농지소재지 마을대표가 확인한 농지이동 및 경작현황 확인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

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자격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을대표가 모아서 읍·면, 포천시 농축산과에 제출해야하며 2월말까지 신청접수한 자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8월말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2월 28일 이전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농축산과(031-538-2318, 2321)나 각 읍·면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용자

용자한도액 업소당 3천만원 이내

포천시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및 화장실 개선 등이다. 단 융자지원은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당초 신고 면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유·단란주점 업소는 영업장을 제외한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만 가능하다.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지정준비업소 포함)의 경우 업소당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 (모범음

식점 포함)의 경우 업소당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 개선의 경우 업소 당 2천만원 이내다. 또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액은 업소당 3천만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영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융자금리는 모두 연리 1%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위생행정부서(031-538-2232)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농산물 인증제도 대폭개선

소비자 혼란방지 위해 6종류에서 3종류로



현재 사용되는 농작물 종류별 심벌과 로고.

농림부는 현재 6종류로 되어 있는 농산물인증 제도를 3개로 줄이는 등 대폭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는 인증제 종류가 많은데서 오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인증, 저농약인증, 품질인증제도의 폐지와 친환경인증제도의 전환기 인증은 유기인증으로 통합 등 현행 인증제도를 Codex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또 품질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08년 폐지 저농약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 폐지하는 등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배경에는 농산물인증제도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92년도 도입된 제도로 당도, 색상, 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최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함으로써 그동안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인증품의 특성(산지유명도, 품질수준, 안전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제기준도 없으며,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정부인증제도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인증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저농약 농산물은 중단하여 친환경인증제도의 종류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外國人 고용허가제 전화한통으로

고용신청·상담전화번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통으로 구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전화 한통이면 사용자 거주지(사업장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인신청 접수·처리 기관(공단 지방사무소)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국인고용지원 업무 전용 전국대표전화 1577-0071이 지난해 28일부터 개통했다.

전국대표전화 1577-0071을 이용하면 전국 23개 공단 사무소의 외국인고용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고용·도입 One-Stop대행서비스), 외국인취업교육 신청은 물론 각종 제도관련정보에 대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 신청(접수) 방법을 ▶사용자의 FAX신청 ▶사업장 출장접수 ▶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중에서 사용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 이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FAX 신청 방법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본 사업장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貸金을 지급하라”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체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민약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한다. 이원단체 입장에서는 부가가치

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의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어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한다.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정하고 기정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시켜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원단체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민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해 놓는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우리 지역의 사업소

번개 퀵서비스

고객중심의 운송, 배송 專門



대표 김용구

바쁜 생활의 연속으로 긴급을 요하는 서류나 제품을 깜박 잊고 준비하지 못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비즈니스 업무상 곤혹스러움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서류나 물건을 가져오기에는 부족한 시간,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려면 안철부철 하지말고 퀵서비스를 떠올려보자. “고객이 원하신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신속, 정확한 배달, 운송으로 고객 맞춤형 배송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는 번개 퀵 서비스

에는 적재 물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피해 보는 고객들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순하게 고객들이 주문한 물건만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과 정성까지 운송하며 다음에 꼭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된 전략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더불어 자사 매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진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삶을 살자”란 평소 좌우명을 가슴속에 새기며 실천하고 있는 김 대표와는 “퀵서비스 대행업체들이 관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만이 살길이다.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수시로 열린 대화시간을 갖고 있다”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나 제품을 제 시간에 맞추어 전달해줄 때 반기운 표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을 건넬 때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은 보기에라도 좋을뿐더러 자신들의 사기충진에도 좋을 듯 하다.

현재 번개 퀵서비스는 오토바이 20대와 1톤 차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전지역을 무대로 신속, 정확, 친절을 앞세워 광범위한 영업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 정확, 친절은 퀵서비스의 기본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의 생활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84-2호 대표: 김용구)가 지향하고 있는 차별화 된 서비스다. 퀵서비스 대행업은 현재 많은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각 퀵서비스 대행업체들은 고객 유치에 끊임없는 변신을 하고 있으며, 결국 많은 업체의 고객들은 퀵서비스 대행업체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번개 퀵서비스는 지난 2003년 7월에 4명의 직원으로 출발해 현재 23명의 직원이 365일 24시간 대기하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급성장을 하게된 과정에는 김 대표와 전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번개 퀵서비스는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만약 배달, 운송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 시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고객들에게 와전되며 많은 업체들이 번개 퀵서비스를 믿고 찾는다고 한다. 특히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따르고 있는 직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번개 퀵서비스는 경력자 위주로 직원을 채용하며 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이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며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있는 김 대표와 모든 업무를 내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번개 퀵서비스가 이 지역에서 제일가는 퀵 서비스 업체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전화 031)541-3842~4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번개 퀵 서비스는 신속·정확한 배달, 운송으로 고객 맞춤형 배송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적재함에서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H-Beam 낙하사고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트럭적재함에서 적재되어 있는 H-Beam을 하역하기 위해 짐걸이로 사용했던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2단으로 적재된 H-Beam을 받쳐 두었던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차량하부로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H-Beam의 중량물이 약 1.5톤으로 하부에 받침목 설치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물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화물 적재방법 개선하고, 적재된 화물 하역작업 시 짐걸이로 사용한 로프, 체인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는 등 화물 적재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